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7월 생산은 전월대비 0.5% 감소(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과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5%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4.7%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비금속광물 등에서 늘어 전월과 동일한 수준임(전년동월대비 +7.6%).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4.2%).

◆ 2021년 7월 소비는 전월대비 0.6%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3%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7.9%).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0%)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1%)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1.7%).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9%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2%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7월	6월p	7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0.3	1.6(6.5)	-0.5(4.7)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1.9	2.3(11.5)	0.4(7.9)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2.3	2.5(11.8)	0.0(7.6)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0.2	-0.7(-5.6)	-1.9(-8.1)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4	1.6(5.0)	0.2(4.2)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6.1	1.4(1.6)	-0.6(7.9)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0.5	-0.5(9.9)	3.3(11.7)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6	0.2(2.6)	0.6(2.6)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8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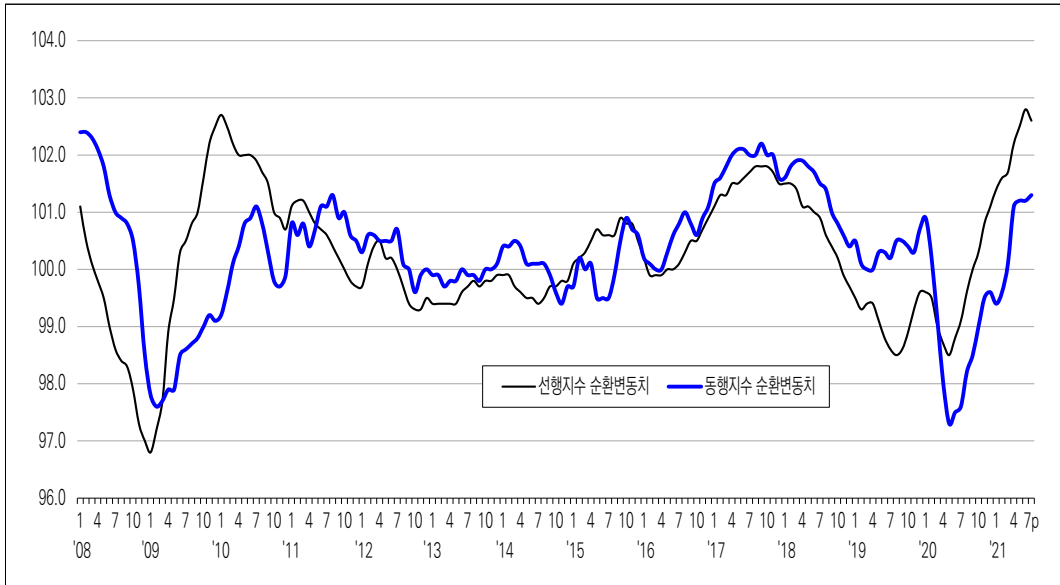
○ 202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4%), 교통(0.8%), 오락·문화(1.1%), 음식·숙박(0.4%), 주택·수도·전기·연료(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기타 상품·서비스(0.1%), 주류·담배(0.1%)는 상승, 교육, 의료·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보건(-0.1%)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7%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대비 0.8% 상승함.

◆ 2021년 7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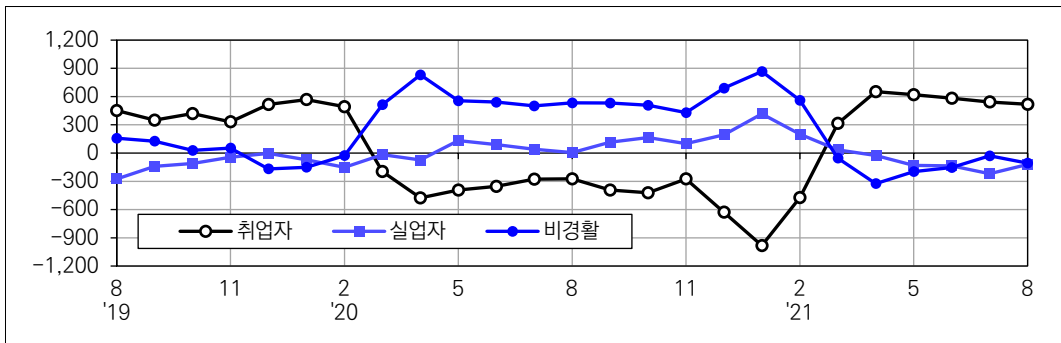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는 소폭 증가

○ 2021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전월대비) 4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8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전환한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 감.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됨. 도소매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과 교육서비스는 증가폭이 확대됨. 숙박음식은 감소폭이 확대됨.
- (연령별) 8월은 전 연령대에서 전월대비 실업자는 감소하고 비경황은 증가함. 20대, 50대, 60대는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소폭 감소함.
- (종사상 지위별) 8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및 임시직의 증가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이 감소 전환되고 사업관리지원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건설업 및 공공행정이 감소로 전환된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일용직은 건설업이 증가 전환되어 감소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8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22만 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전월대비로도 7만 5천 명 감소함.
- (실업자) 8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2만 명 감소하여 7월(-21만 8천 명)보다 감소폭이 축소됨. 반면 전월대비 실업자는 13만 6천 명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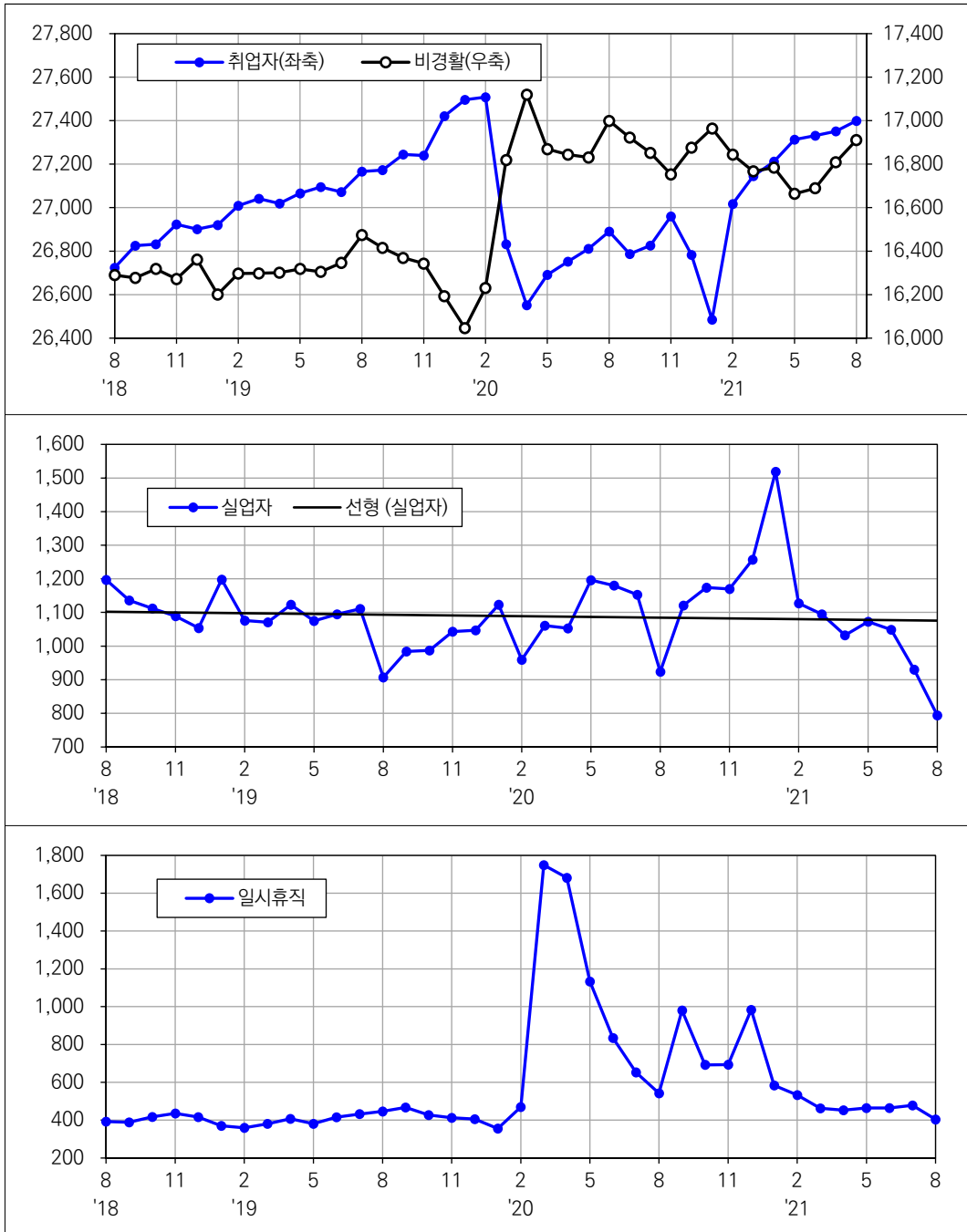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8월은 전 연령에서 전월대비 실업자는 감소하고 비경황은 증가함.

- 20대, 50대, 60대는 전월대비 취업자와 비경황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함. 전년동월대 비로 20대는 주로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에서 증가함. 50대는 교육서비스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함. 60대는 주로 농림어업, 건설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함.
- 30대와 40대는 전월대비 취업자가 소폭 감소함. 40대는 비경황이 크게 증가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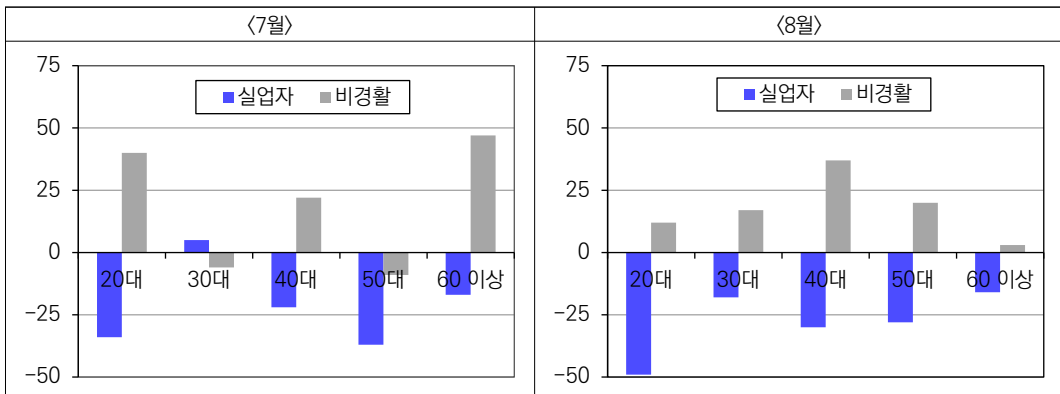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취업자	23	17	6	(-13)	186	166	137	(19)	-112	-122	-88	(-9)
실업자	11	1	-4	(-3)	-76	-99	-70	(-49)	-43	-29	-6	(-18)
비경황	-187	-163	-139	(10)	-91	-60	-74	(12)	5	5	-49	(17)
실업률	4.2	-0.6	-2.1	(-1.1)	-2.2	-2.6	-1.9	(-1.2)	-0.7	-0.4	-0.1	(-0.3)
고용률	1.5	1.3	0.6	(-0.6)	2.7	2.5	2.2	(0.5)	0.0	-0.1	0.3	(0.0)
	40대				50대				60세 이상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취업자	12	11	11	(-11)	74	109	76	(13)	399	361	377	(60)
실업자	-14	-33	-22	(-30)	-25	-54	-21	(-28)	12	-3	1	(-16)
비경황	-75	-53	-62	(37)	-66	-65	-59	(20)	261	305	276	(3)
실업률	-0.2	-0.5	-0.3	(-0.4)	-0.4	-0.8	-0.3	(-0.5)	0.0	-0.2	-0.1	(-0.3)
고용률	0.8	0.8	0.9	(-0.1)	1.0	1.4	0.9	(0.1)	0.8	0.6	0.7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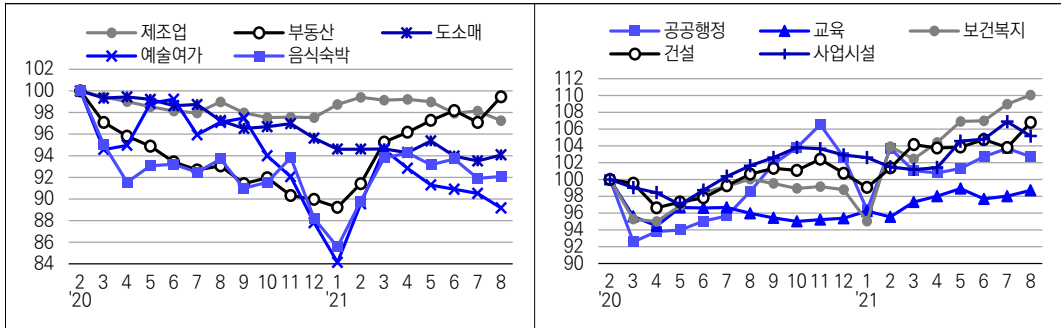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예술여가, 공공행정, 사업시설이 감소함. 음식숙박은 정체된 반면 부동산, 도소매, 교육, 보건복지, 건설은 전월보다 개선됨.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6	12	37	19	7	7	33	2.3
광업	-1	-1	1	0	-1	2	1	8.3
제조업	-10	6	-76	-47	9	-39	-77	-1.8
전기·가스·증기	-5	-7	-3	0	0	4	4	6.0
수도·원료재생	17	21	18	1	5	-2	4	2.4
건설업	140	92	123	18	-19	60	59	2.8
도매 및 소매업	-164	-186	-113	-50	-16	20	-46	-1.4
운수 및 창고업	89	121	107	10	33	-15	28	1.8
숙박 및 음식점업	12	-12	-38	12	-41	4	-25	-1.2
정보통신업	57	46	75	23	-19	20	24	2.7
금융 및 보험업	44	36	22	9	-16	-13	-20	-2.5
부동산업	25	24	35	5	-6	13	12	2.3
전문·과학·기술	87	57	55	25	-15	-2	8	0.7
사업시설관리지원	81	87	48	3	28	-23	8	0.6
공공행정·사회보장	87	91	47	16	11	-11	16	1.4
교육서비스업	22	27	51	-23	6	13	-4	-0.2
보건 및 사회복지	208	237	243	2	47	26	75	3.0
예술·스포츠·여가	-43	-28	-43	-2	-2	-7	-11	-2.3
협회·단체·수리·기타	-55	-50	-41	15	2	-1	16	1.4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9	-25	-24	-7	-1	3	-5	-5.6
국제 및 외국기관	-4	-5	-6	0	-2	0	-2	-1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8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및 임시직의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제조업이 감소 전환하고 사업관리지원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임시직의 증가폭 축소는 주로 건설업 및 공공행정이 감소로 전환된 영향임.
 - 일용직은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교육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21	361	324	13	77	-5	85	0.6
임시직	360	352	312	88	3	16	108	2.3
일용직	-114	-170	-89	-49	-31	68	-12	-0.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4	-71	-61	-31	1	21	-9	-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3	87	56	43	-19	-31	-6	-0.2
무급가족종사자	-15	-16	-23	-9	-5	-12	-26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농림어업	-4	-6	-6	-1	3	-2	-2	-3	12	-15	-12	-11	33	32	36
제조업	9	18	-44	-5	-8	-17	-23	-12	-5	-12	-13	-15	4	3	-4
건설업	65	66	83	8	29	-15	29	-44	12	8	6	0	26	30	38
도소매	-87	-88	-48	21	-2	4	-40	-39	-26	-23	-27	-21	1	7	7
운수창고	48	62	52	4	13	22	14	4	2	-3	-4	0	27	44	31
음식숙박	-54	-24	-28	79	33	33	-39	-52	-58	3	6	-5	22	22	25
정보통신	56	38	70	16	17	16	1	4	2	-4	-2	-2	-12	-10	-11
금융보험	-1	-11	-6	40	43	33	-2	-2	-2	-1	-1	-1	8	8	-1
부동산	20	19	26	7	7	14	0	-1	-3	-9	-8	-14	14	11	13
전문과학기술	80	57	62	17	13	13	4	2	-2	-4	-5	-3	-5	-5	-10
사업관리지원	65	50	4	11	22	28	-4	10	6	-7	-5	6	14	8	3
공공행정	66	64	82	24	26	-35	-3	1	0	-	-	-	-	-	-
교육서비스	-12	2	2	38	42	69	-2	2	1	-5	-4	3	-5	-22	-31
보건복지	84	97	75	135	154	171	-8	-7	-3	1	3	9	-5	-8	-6
예술스포츠	3	21	4	0	-3	3	-27	-16	-18	-11	-9	-11	-5	-15	-14
협회단체	-20	-10	-13	-13	-17	0	-15	-15	-13	-3	4	4	-2	-14	-17
가구 내 고용	1	1	0	-20	-19	-20	3	-1	0	0	0	0	-3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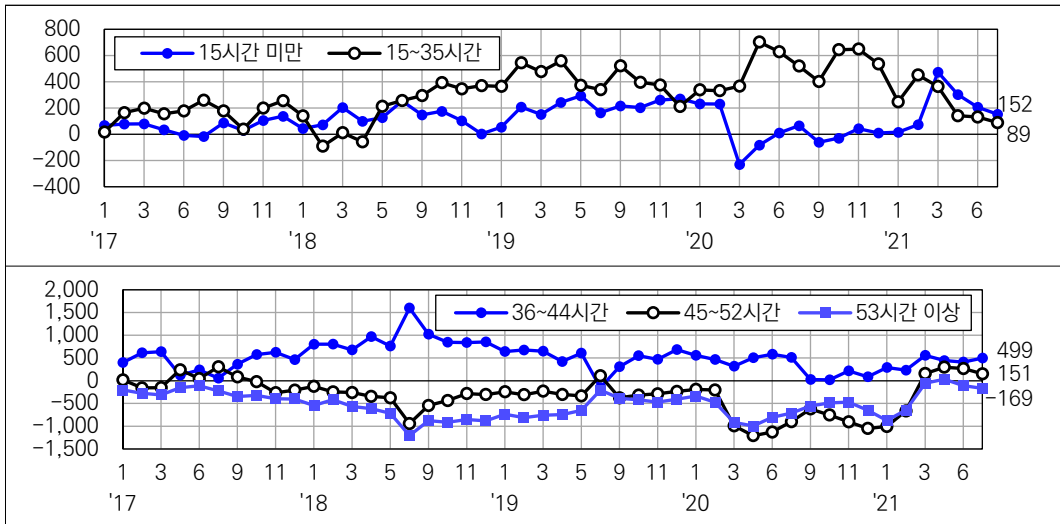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8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함.

－ 이는 2021년 8월 조사주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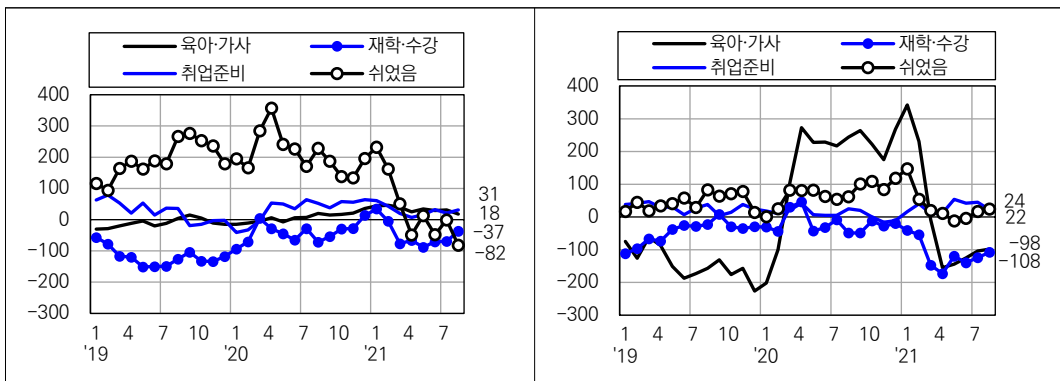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7월 -3만 명)됨.

－ 남성은 쉬었음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재학·수강은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육아·가사 및 재학·수강에서의 감소폭 축소가 이어지고 취업준비의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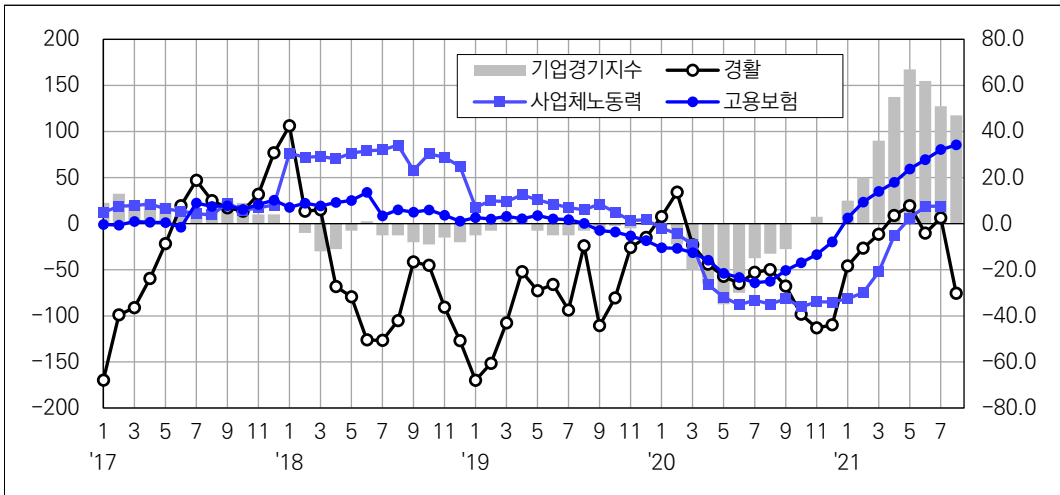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

○ 202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7만 6천 명 감소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의 확대가 지속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세가 유지됨. 피보험자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3만 9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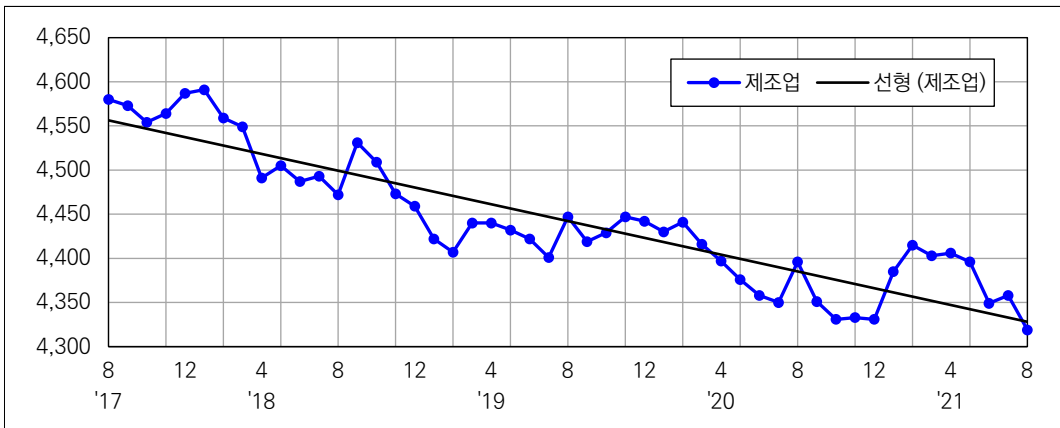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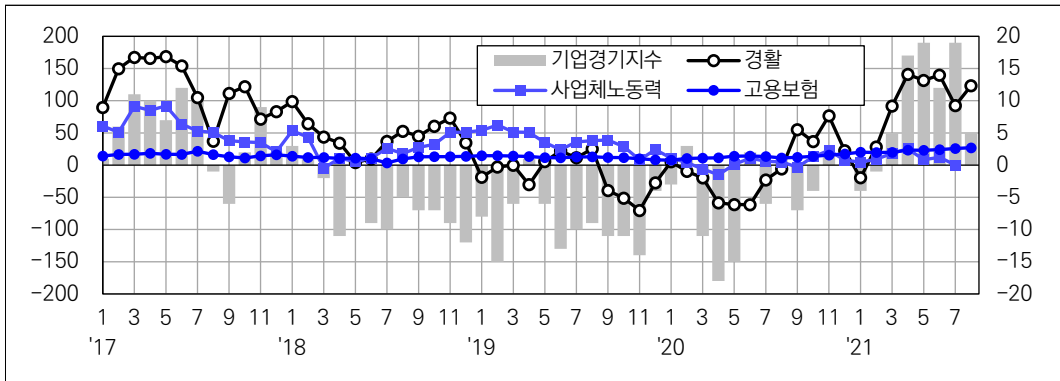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8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개월 연속 2만 명 이상의 증가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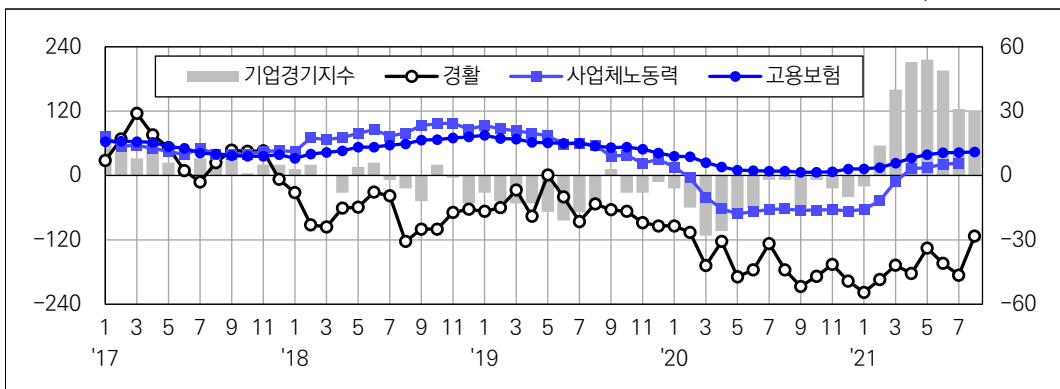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8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도소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 주로 상용직, 남성, 10인 미만 사업체의 감소폭이 축소됨.
 - (숙박음식) 모든 고용지표의 감소폭이 확대됨. 경할은 주로 남성이 감소로 전환된 영향임.
 -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주로 상용직, 여성, 전문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교육서비스) 경할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학원 생산지수 등 고용 지표의 증가폭이 확대됨. 경할은 임시직, 여성, 5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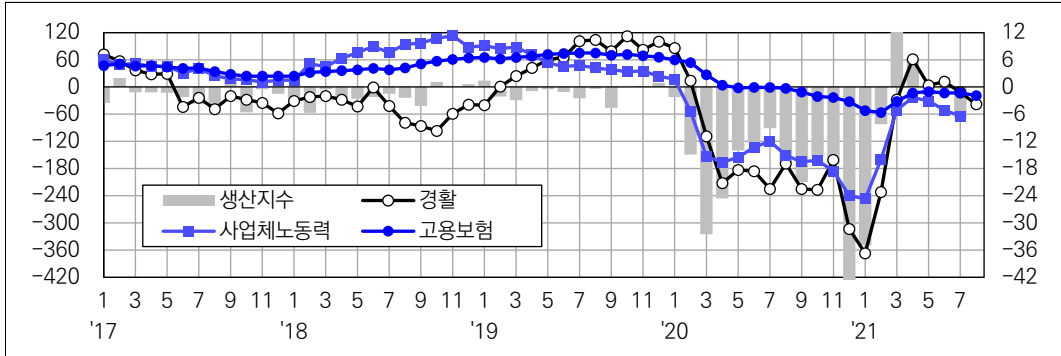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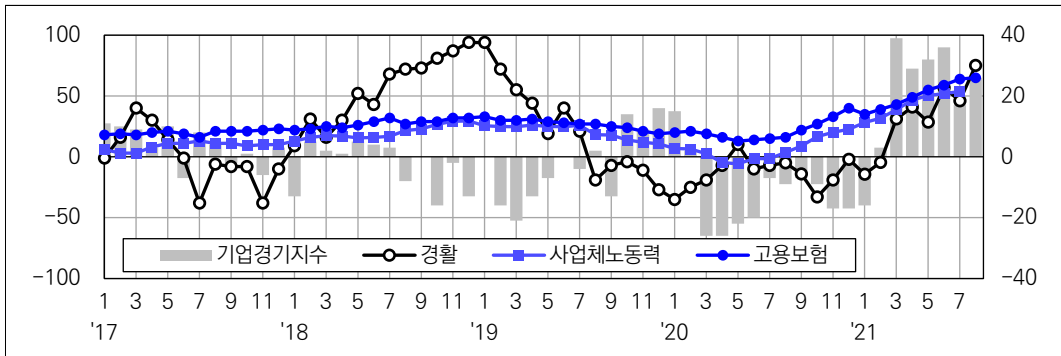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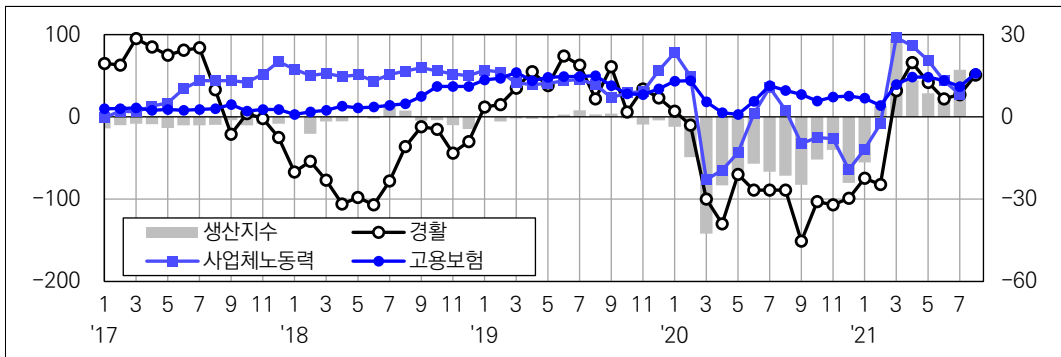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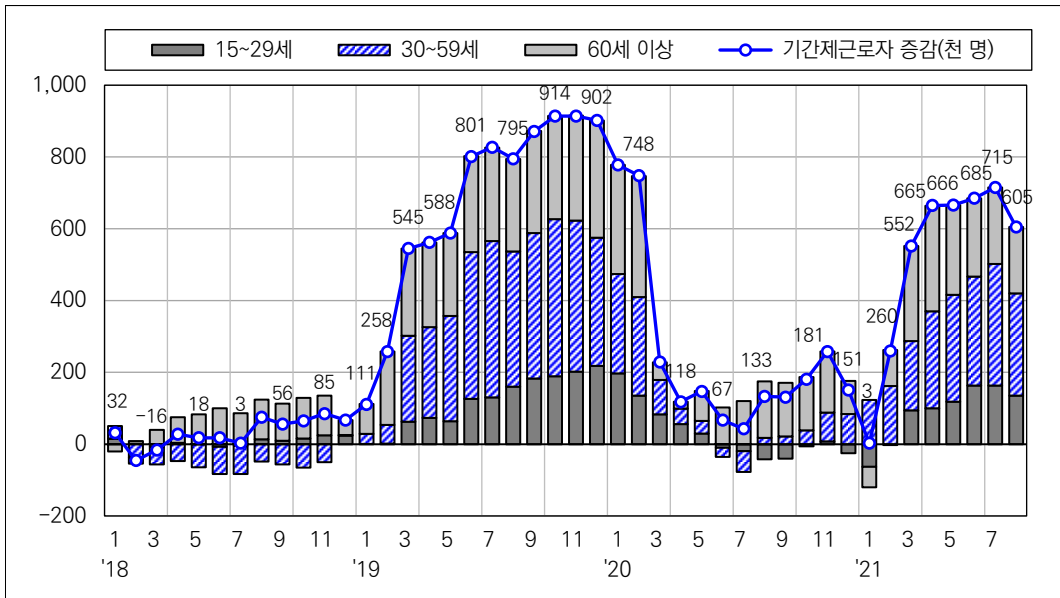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1년 8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0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2021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 2천 원(4.2% 증가)임.
 - 2021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68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1만 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정액급여 둔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감소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 기인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전년동월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6월에는 건설업 임금상승폭 축소와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6월	6월	1~6월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495 (0.6)	3,351 (0.7)	3,637 (4.0)	3,492 (4.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678 (-0.3)	3,832 (4.2)	3,680 (4.4)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0 (2.1)	3,055 (1.8)	3,156 (3.1)	3,166 (3.6)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5 (-3.1)	190 (-9.8)	205 (4.7)	208 (9.5)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22 (-13.6)	280 (-12.4)	472 (11.8)	306 (9.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19 (8.3)	1,655 (8.4)	1,686 (4.1)	1,711 (3.4)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4.9 (0.5)	104.9 (0.0)	107.4 (1.8)	107.4 (2.4)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0	0.7	2.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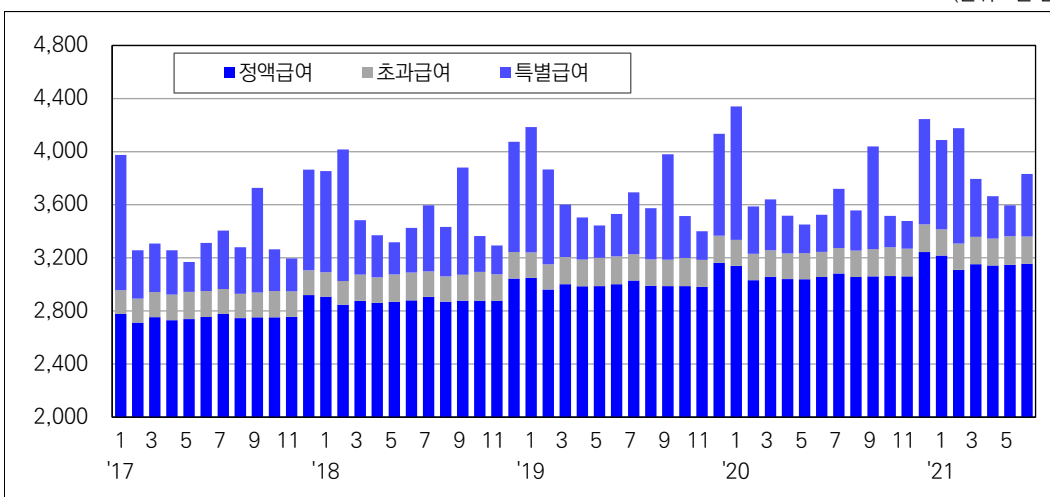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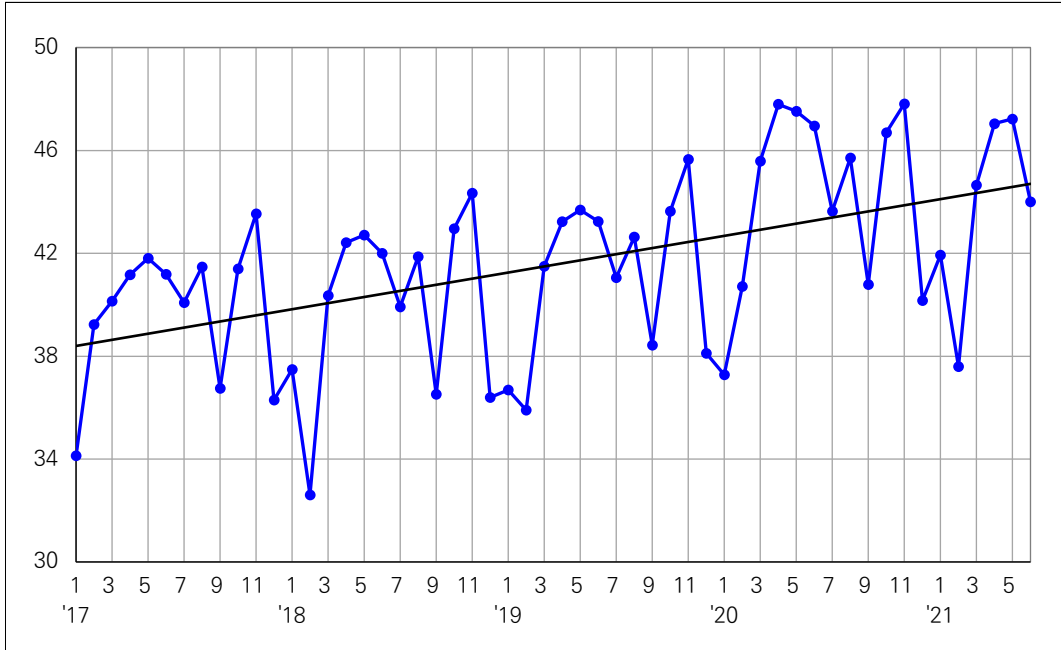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0%, 4.5%임.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4.8% 증가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3%, 1.5%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됨.
 -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1~6월 평균 5.1%(2020년 동 기간 평균 -4.6%)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성과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임. 동 기간 중소기업의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의 성과급 증가 영향으로 3.7%(2020년 동 기간 평균 0.8%) 상승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93 (1.7)	3,157 (1.5)	3,087 (1.4)	3,268 (3.5)	3,210 (4.0)
	상용임금총액	3,217 (11.5)	3,338 (3.7)	3,377 (1.2)	3,331 (0.8)	3,258 (0.7)	3,453 (3.7)	3,394 (4.2)
	정액급여	2,723 (4.7)	2,841 (4.3)	2,915 (2.6)	2,898 (2.5)	2,902 (2.3)	2,989 (3.1)	3,005 (3.5)
	초과급여	172 (4.8)	175 (2.0)	171 (-2.4)	166 (-5.0)	161 (-11.2)	173 (4.3)	175 (8.5)
	특별급여	322 (1.9)	322 (-0.2)	292 (-9.4)	267 (-11.7)	194 (-9.6)	291 (9.3)	214 (10.2)
	비상용임금총액	1,422 (5.3)	1,505 (5.8)	1,615 (7.3)	1,599 (7.4)	1,641 (7.5)	1,662 (4.0)	1,696 (3.3)
대규모	소 계	5,305 (6.5)	5,356 (1.0)	5,242 (-2.1)	5,243 (-3.4)	4,712 (-2.8)	5,507 (5.0)	4,926 (4.5)
	상용임금총액	5,474 (6.4)	5,492 (0.3)	5,335 (-2.8)	5,332 (-4.6)	4,786 (-4.3)	5,606 (5.1)	5,018 (4.8)
	정액급여	3,735 (3.8)	3,843 (2.9)	3,847 (0.1)	3,834 (-0.1)	3,776 (-0.8)	3,938 (2.7)	3,918 (3.8)
	초과급여	324 (0.0)	335 (3.5)	340 (1.4)	335 (0.1)	325 (-8.0)	352 (5.0)	362 (11.4)
	특별급여	1,415 (15.7)	1,313 (-7.2)	1,149 (-12.5)	1,163 (-17.7)	685 (-18.5)	1,317 (13.2)	737 (7.7)
	비상용임금총액	1,509 (7.8)	1,712 (13.4)	2,029 (18.5)	2,018 (26.4)	1,950 (27.8)	2,129 (5.5)	1,97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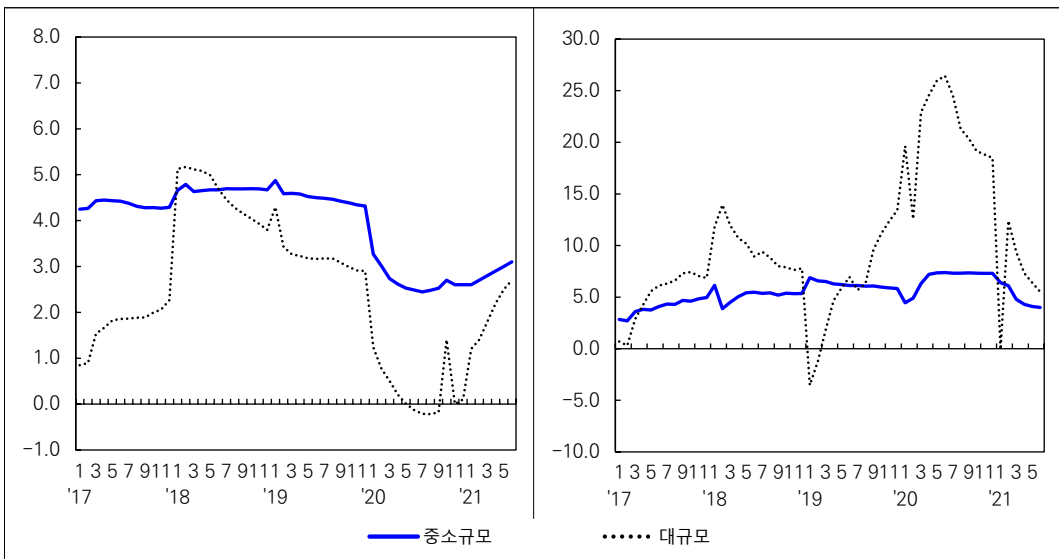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광업(-6.5%)과 교육서비스업(-1.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6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40만 5천 원)이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593만 5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8만 1천 원), 정보통신업(452만 8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운수 및 창고업(8.3%)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1%)으로 나타남.
- 2021년 6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5만 7천 원)이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3만 8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62만 5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49만 2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3,376(5.3)	3,490(3.4)	3,527	3,495	3,351	3,637(4.0)	3,492(4.2)
광업	3,835(3.3)	3,977(3.7)	4,325	4,248	4,404	4,288(1.0)	4,118(-6.5)
제조업	3,930(6.5)	4,017(2.2)	3,990	3,936	3,647	4,156(5.6)	3,877(6.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2.5)	6,502(1.0)	6,733	6,460	7,997	6,529(1.1)	8,405(5.1)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6.5)	3,506(6.6)	3,888	3,759	3,867	3,955(5.2)	3,977(2.8)
건설업	2,784(6.1)	2,951(6.0)	3,032	3,037	3,015	3,072(1.1)	3,080(2.2)
도매 및 소매업	3,214(5.4)	3,372(4.9)	3,423	3,383	3,262	3,502(3.5)	3,386(3.8)
운수 및 창고업	3,357(6.4)	3,476(3.5)	3,530	3,421	3,371	3,617(5.7)	3,650(8.3)
숙박 및 음식점업	1,757(8.1)	1,875(6.7)	1,879	1,874	1,833	1,879(0.3)	1,857(1.4)
정보통신업	4,277(3.8)	4,463(4.3)	4,613	4,682	4,416	4,878(4.2)	4,528(2.5)
금융 및 보험업	6,026(5.6)	6,236(3.5)	6,526	6,577	5,772	7,109(8.1)	5,935(2.8)
부동산업	2,600(6.3)	2,755(6.0)	2,848	2,813	2,872	2,938(4.4)	2,890(0.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5.9)	4,901(3.0)	4,871	4,796	4,696	4,919(2.6)	4,881(3.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5.5)	2,332(5.9)	2,411	2,387	2,350	2,463(3.2)	2,438(3.7)
교육서비스업	3,397(2.5)	3,474(2.3)	3,366	3,404	3,195	3,378(-0.7)	3,161(-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4.8)	2,960(5.8)	2,942	2,921	2,873	2,976(1.9)	2,950(2.7)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6.8)	2,819(5.0)	2,873	2,823	2,705	2,931(3.8)	2,826(4.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7.2)	2,517(4.8)	2,563	2,518	2,485	2,662(5.7)	2,625(5.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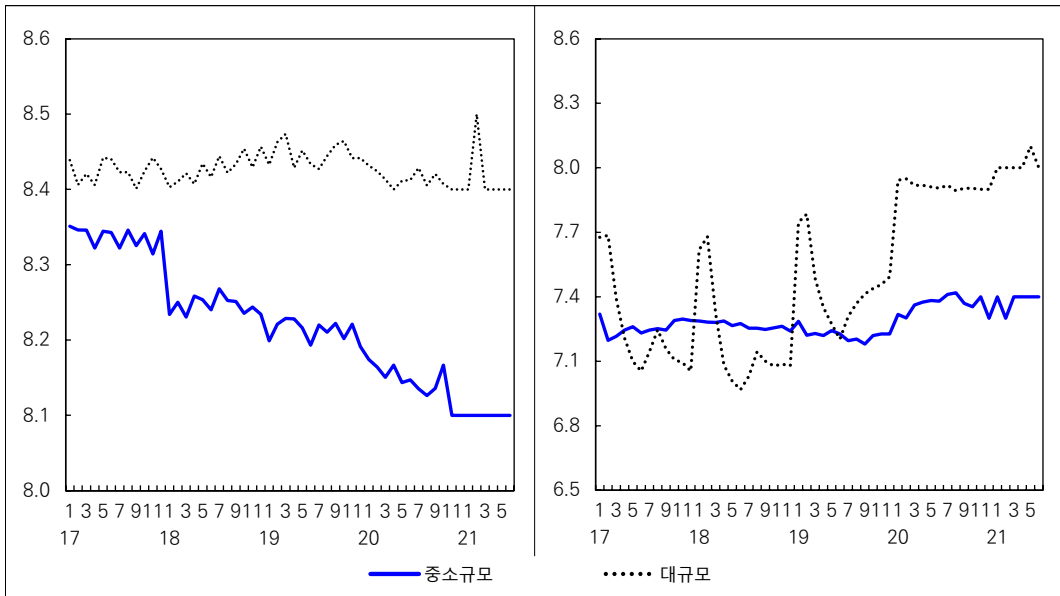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증가 (월력상 근로일수는 22일로 전년과 동일)

- 2021년 6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1년 6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2.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2.2시간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전년 동월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6시간으로 0.9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9.1(-1.5)	166.8(7.4)	159.3(0.1)	168.4(1.0)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6.2(-2.0)	174.9(7.4)	166.5(0.2)	176.6(1.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8.7(-1.4)	167.7(8.9)	158.8(0.1)	169.0(0.8)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2.6)	7.2(-19.1)	7.7(1.3)	7.6(5.6)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5.2(-0.2)	98.4(4.1)	96.7(1.6)	100.5(2.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2.2(-0.2)	170.7(9.4)	162.4(0.1)	171.6(0.5)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3.2(-1.3)	171.9(7.8)	163.5(0.2)	172.9(0.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2.4(-0.9)	161.6(9.6)	152.5(0.1)	161.9(0.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8(-6.1)	10.2(-14.3)	11.0(1.9)	11.1(8.8)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5.7(31.2)	129.0(50.9)	127.4(1.4)	128.7(-0.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광업(188.6시간)이 가장 길고, 건설업(142.1시간)이 가장 짧음.

- 2021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88.6시간)이며, 다음으로 제조업(183.9시간),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83.5시간), 부동산업(177.6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2.1시간)이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4.9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52.1시간) 순임.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3.5%)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업(-1.4%)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4%)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59.6	167.4	159.8(0.1)	168.9(0.9)
광업	176.6(0.5)	175.7(-0.5)	181.2	178.6	186.5	180.9(1.3)	188.6(1.1)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1.4	177.7	173.5(1.2)	183.9(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2.4	168.6	161.6(-0.5)	166.3(-1.4)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5.1	184.6	175.5(0.2)	183.5(-0.6)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7.1	143.3	135.1(-1.5)	142.1(-0.8)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2.6	171.3	162.8(0.1)	171.9(0.4)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8.2	164.9	158.7(0.3)	167.3(1.5)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48.9	153.8	145.9(-2.0)	152.1(-1.1)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3.0	174.2	163.0(0.0)	173.6(-0.3)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1.5	172.5	161.6(0.1)	171.6(-0.5)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1.7	180.1	170.7(-0.6)	177.6(-1.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1.5	172.8	161.1(-0.2)	171.7(-0.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0.8	167.5	161.2(0.2)	170.0(1.5)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4.4	146.2	135.8(1.0)	144.9(-0.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7.3	166.2	156.8(-0.3)	166.2(0.0)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9.0	159.0	150.5(1.0)	161.8(1.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8.4	166.2	160.9(1.6)	169.7(2.1)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5건
 - －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2건)보다 13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8월 조정성립률 11.8%
 - － 8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41.7%에 비해 29.9포인트 낮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8.	25	19	2	2	0	15	0	15	1	1	13	11.8%
2020. 8.	12	16	5	2	3	7	0	7	1	3	2	41.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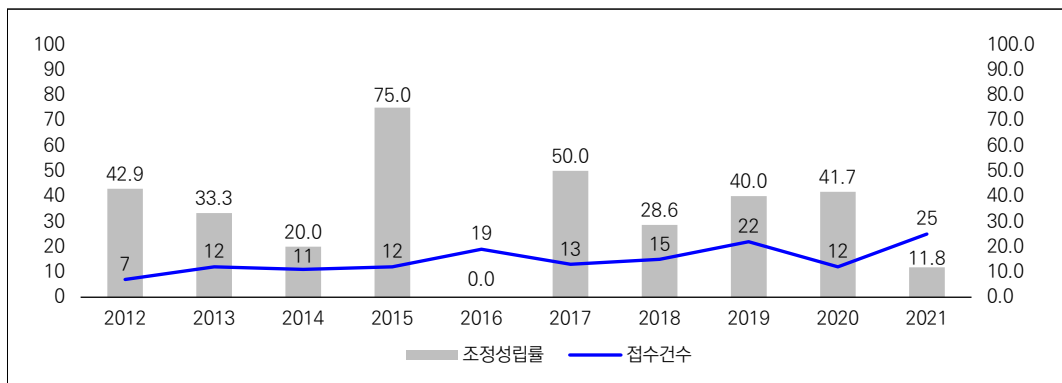
〈표 2〉 2012~21년 8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8.	2013. 8.	2014. 8.	2015. 8.	2016. 8.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접수건수	7	12	11	12	19	13	15	22	12	25
조정성립률	42.9	33.3	20.0	75.0	0.0	50.0	28.6	40.0	41.7	11.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8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73건
 - 8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81건)보다 8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7%(4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2.3%(120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8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8.	173	166	42	4	66	8	23	23	544
2020. 8.	181	167	27	6	95	12	18	9	56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3건
 - 8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2건)보다 11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6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8.	13	6	0	0	6	0	0	0	17
2020. 8.	2	2	1	0	0	1	0	0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배달기사 노조 출범

- 가입 대상은 배달 수단과 상관없이 배달 행위를 하는 근로자
 - 8월 24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는 출범식을 열었음.
 - 플랫폼배달지부 가입 대상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도보, 자전거, 승용차 등 배달 수단과 상관없이 배달 행위를 하는 근로자임(퀵서비스 배달 근로자도 포함).
 - 노조는 향후 활동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배달시간, 수수료 등 근로조건 일방적 결정 저지 △부당한 조건의 계약 체결 거부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상 운송보험료 인하 △플랫폼 기업의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 의무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연 2회 특수건강 검진 실시 등 플랫폼배달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요구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은 내달 출범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통해 금융 지원 및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한국노총은 공제회를 통해 플랫폼배달 근로자들이 금융 지원과 직업 훈련, 안전보건 교육, 직종별 단체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한국GM 임금협상 타결

- 찬성률이 65.7%
 - 8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 7,012명이 참여한 2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65.7%로 집계됐음.
 - 조합원 7,628명 중 7,012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4,604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고, 2,369명은 반대표를, 39명은 무효표를 던졌음.
 - 투표인 중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한국GM노사가 지난 5월 27일 시작한 임단협은 사실상 최종 타결되었음.
 - 합의 내용은 월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일시금 450만 원 지급,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자사 브랜드 차량 정비쿠폰 지급, 직원 1인당 20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임.
 - 다만 조합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겨 450만 원 중 400만 원을 임금협상 타결 즉시, 나머지 50만 원은 올해 말에 주기로 했음.

◆ 기아 노사 무분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노동조합원 68.2% 찬성

○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 8월 27일 기아차 노조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되었음.
-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조합원 2만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2만 6,945명이 투표했고, 이 중 68.2%인 1만 8,38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음.
-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350만 원,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2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주식 13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음.
- 성과급 중 100%+350만 원과 특별격려금은 타결 즉시 지급하고, 100%는 2021년 말에 지급함.
- 이 밖에도 노사는 4차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첫 차 구매 시 직원 할인 혜택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원 복지 개선에도 합의했음.

◆ 르노삼성차 노사 4년째 기본급 동결 합의

○ 르노삼성차 노사 4년째 기본급 동결 합의

- 9월 1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6차 실무협상과 13차 본협상 끝에 두 해 동안 기본급을 동결하고 8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음.
- 부산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노력도 약속했음. 노사는 “향후 부품 수급 등 경영상 사유로 부산공장 전체 비가동일이 발생할 경우 휴업조치 외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시행한다”고 합의했음.
- 영업·서비스와 관련해 노사는 “직영 사업소가 신차판매 및 고객만족의 중요 거점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손익구조 개선을 통해 PS사업소가 지속·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명시했음. 회사가 직영사업소 적자구조 개선을 이유로 인천·창원·광주사업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그동안 고용안정을 요구해 왔음.
- 노사 잠정합의에 따라 회사는 2020·2021년 통합해서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 원+30만 비즈포인트, 신차 ‘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HEV) 유럽 수출 성공 론칭 격려금 1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음.

◆ 보건의료노조-복지부 13차 교섭 끝에 합의

○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9월 중 마련

-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3차례 교섭 끝에 인력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음.
- 이날 교섭에서는 막판까지 쟁점이 된 5개 과제에서 합의를 이뤘음. 우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세부실행방안을 10월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음.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는 2022년 1월 시행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했음.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70여 개 증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음.
- 직종별 인력기준은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음.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함. 이 개편방안은 2022년 안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명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음.
-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안에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3월 내 시행하기로 했음.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하기로 했음.
-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기로 했음. 이 밖에 노정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 의료안전망 구축 △ 불법의료 근절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음.
- 다만 생명안전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음.

◆ 하나투어 노사 첫 단협 체결

○ 투표율 79.7%, 찬성률 100%로 가결

- 8월 31일 하나투어 노사는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음.
- 하나투어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4월부터 9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지난 1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음. 노조는 8월 23~2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79.7%, 찬성률 100%로 가결했음.
- 노사는 이날 85개 조항과 6개 부칙조항으로 구성된 단협안에 서명했음.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원 25명당 250시간 부여하는 방식의 근로시간면제 인정과 같은 노조활동 보장 내용이 담겼음.
 -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된 구조조정 인원에 대한 복직 문제는 풀지 못했음.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인력 규모는 850명 정도로, 1,200여 명이 남은 상황에서 700여 명은 무급휴직 상태임.

◆ 삼성웰스토리 노사 임단협 체결

- 노조설립 직후 전보된 노조간부 복귀 합의
 - 9월 1일 삼성웰스토리 노사는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었음.
 - 단체협약안에는 노조사무실 확장이전과 근로시간면제 확대, 노조활동 보장 확대 등 85개 조항이 담겼음. 임금은 직급(CL1~CL4)에 따라 연봉총액을 2~3% 인상하기로 했음.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적용한 수치와 동일함.
 - 노조가 요구한 'NI(Need Improvement)등급' 절대평가 전환 단체협약 명기는 합의하지 못했음. 사측은 이미 지난 6월 NI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음.
 - 노조의 임단협 체결은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 소속 9개 노조 중 다섯 번째임.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삼성SDI울산·스테코노조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음.

◆ 2021년 상반기 산재사망 노동자 3.3% 증가

- 6개월 동안 1,137명 일하다 목숨 잃어
 - 8월 27일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5만 8,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음.
 -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2020년 상반기보다 무려 13.3%(6,873명) 증가했음. 사고와 질병 모두 재해자가 10% 이상 늘었음. 사고 재해자는 12.1% 증가한 4만 9,046명, 질병 재해자는 19.6% 늘어난 9,624명임.
 -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올해 상반기만 3.3%가 늘어 1,137명을 기록했음.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0.9%(4명) 늘었고, 질병 사망자는 663명으로 5.1%(32명) 증가했음. 산재 사망만인율은 0.59로 지난해와 동일했음. 노동자 1만 명당 0.59명이 숨진 셈임.
 -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함. 사업장 규모별로는

- 5~49명 소규모 사업장이 203명으로 42.8%의 비중을 보였고, 60세 이상 노동자가 214명으로 45.1%를 차지했음. 떨어짐 사고가 44.3%(210명)로 가장 많았음.
- 질병 사망자는 뇌심혈관계질환이 41.2%(273명)로 가장 많았음. 이어 진폐 32.7%(217명), 직업성암 8.4%(56명) 순임.

〈표 5〉 1~6월 산업재해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재해자수	51,659	51,797	58,670
사고 재해자수	44,331	43,752	49,046
질병 재해자수	7,328	8,045	9,624
전체 사망자수	1,115	1,101	1,137
사고 사망자수	465	470	474
질병 사망자수	650	631	663

자료 : 고용노동부.

◆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군산형 일자리 ‘속도’

○ 2023년까지 2만 5,550대 목표

- 8월 19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음.
- 새만금 산단에 있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10만 5,000㎡(3만 평) 부지에 연면적 2만 8,000㎡(8,600평)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췄음.
- 군산공장에서는 2021년까지 중·대형 전기버스 150대와 전기트럭 2,000대를 생산함. 2023년까지 전기버스·트럭 2만 5,550대를 생산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2억 원을 투자해 25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함. 향후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차 도장 공장을 건설하는 등 완성차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음.
-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고용 인원 83명 가운데 약 75%인 6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까지 신규 인력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임.
- 이번에 신규 개발한 1톤급 전기트럭 ‘스마트 T1’은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탑차로 화물차 틈새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스마트 T1’에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 BMS) 기술이 적용됐음.

-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임.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완성차 4개 기업과 부품 1개 기업이 참여함.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만에 6만 명 돌파

○ 방송연예 29.3%로 가장 많아

- 8월 1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월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6만 905명으로,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이라고 밝혔다.
-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9.8%, 40대 21.2%, 50대 9.9% 순이었으며, 60대가 가장 적은 2.9%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나타나,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이었음.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을 보면, 기존에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곳으로 61.5%를 차지했고,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이 1,228곳으로 37.7%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곳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61.5%를 차지했고, 1~4명 18%, 5~29명 13.9%, 300명 이상 5.2% 순이었음.

◆ 서울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 중'

○ 절반은 종일 집에만 갇혀... 취업자 월평균 수입 135만 원 불과

- 8월 18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 서울시가 2018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뇌병변 장애인 고용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들의 월평균 근무수입은 약 135만 원에 불과했음. 2019년 전국의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률 조사 결과도 12%였음. 이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 34.9%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기초수급가구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약 19.4%였음. 이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 기초수급가구의 비율인 13.4%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임.

- 같은 해를 기준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53.7%는 평일 낮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뇌병변 장애인이 집에만 갇혀 지내고 있는 셈임.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재활병원과 의료기관 이용' '지역 내 복지기관 이용' 등이 대부분이었고 직장이나 고용 등 근무 목적으로 외출하는 이들은 6.4%에 불과했음.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고용이나 교육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 뇌 질환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들을 말함.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은 2019년 기준 4만 1,304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0.5%가량임.

◆ 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 8월 22일 서울시는 업무내용, 근무일·시간, 임금 등 주요 계약 조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 형태와 간병인의 업무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간병인의 고용 형태,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노동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임.
- 간병인은 대체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구함. 그러나 이렇다 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적지 않았고, 간병 서비스 외의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와 달리 '제도화'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실정임.
-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간병서비스 이용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소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